

2025년 제5회 율촌·온을 기초법학 논문상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

Q: 대학원 수료 상태에서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네, 재학생 휴학생 연구생 및 수료 상태에 있는 사람 모두 응모할 수 있습니다.

Q: 대상 논문에 “출판되지 않은 신규 작성 논문(전문석사학위 논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실적심사물 응모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도 응모할 수 있나요?

A: 네, 출판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 또는 실적심사물을 모집요강에 있는 제출 양식에 맞춰 학술 논문의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한다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학위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형식을 갖춰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Q: 수업에서 제출했던 과제물을 발전시켜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해당 원고가 출판된 바가 없고 모집요강에 있는 제출 양식을 만족한다면 그렇게 응모할 수 있습니다.

Q: 응모 자격에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법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모든 대학원생”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 논문의 분야에 법사학·법사회학·법철학·젠더법학 등”이 포함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법학과가 아닌 사학과·사회학과·철학과·여성학과 등에서 법학 관련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응모할 수 있나요?

A: 네, 응모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대학원의 전공명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모 논문의 내용에 법학의 관점이 충실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Q: 논문의 국문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참가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공지된 모집요강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논문으로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이 두 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개인 단독저술 논문 한 편만을 응모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모집요강에 명시된 제출 양식 외에는 원고의 형식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나요?

A: 응모 논문이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원고 형식에 관한 참가자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표지 본문 인용문헌의 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논문 작성 요령을 함께 제시합니다.